

사회

추락·교통사고·재해 등 위급환자 전담 치료

광주·전남등 16곳에 중증외상센터

2016년까지 2000억 투자... 전국 대형병원 대상 공모

추락사고나 교통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중증외상센터'가 광주와 전남·북 등 전국에 마련된다.

총상을 입은 삼호주얼리호 석해군 선장의 치료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중증외상센터는 5일 전국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시작으로 설립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6년까지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전국 16개 대형병원에 기존 시설을 개보수한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 후보 의료기관은 5일부터 시작되는 공모를 통해 동시에 선정한다. 이 중 충분한 여건을 갖춘 2곳을 골라 연내에 개원하고, 내년에는 3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중증외상센터는 교통사고·추락사고 등에 따른 다발성 골절·출혈 환자를 병인도착 즉시 응급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문 치료센터다. 365일,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를 갖추고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번에 설립되는 중증외상센터에는 40~50개의 전용 병상, 그리고 중증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진과 장비가 갖춰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외상센터에는 일반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마취과 전문의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 4개조가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중증외상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전국에 약 650개(1개 센터당 40~50개)의 전용 병상이 마련되고, 연간 약 2만명의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예방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도 35%에서 선진국 수준인 20%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외상환자 예방 가능 외상사망률은 35.2%(2010년)로 미국·일본의 10~1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선진국은 외상전문진료체계를 도입해 외상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203개의 중증외상센터를 확보하면서 예방가능사망률이 30%에서 15%로 급감했으며, 90개의 센터를 갖춘 독일 역시 40%에서 20%로 줄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증외상센터 이송되는 환자 기준은?

6m 높이서 추락·車體에 깔린 보행자...

중증외상센터는 각종 교통사고, 추락사고, 총상 등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5년간 2000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중증외상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 등의 사례를 토대로 자체적인 환자이송 기준과 응급환자 대처 매뉴얼 등도 개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중증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사고 상황을 중심으로 중증외상센터 이송대상을 정했다.

예를 들어 추락사고는 환자가 추락한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자동차 사고의 경우 환자가 차량 바깥으로 튕겨져나가거나 같은 구획(열 좌석 등)에 있던 승객이 사망한 경우, 시속 60km 이상 속도로 충돌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또 오토바이 사고는 시속 30km 이상 속도에서 충돌하거나,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자체로부

터 튕겨나갔다면 중증외상센터 이송 대상이다. 이 밖에 보행자는 차에 치여 튕겨져나가거나 차체에 깔린 경우 중증외상 환자로 분류된다.

다만,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119구급대원이 자체적으로 중증외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단 중증외상센터로 이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증외상센터에 도착한 환자는 외상 처치실에서 응급소생팀에 의해 초기 처치를 받는다. 초기처치가 끝난 환자가 외상 수술실로 옮겨지면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각 분야 전문의에 의해 응급수술이 시작되고, 이후 전용 외상 중환자실, 외상 일반병동에서 집중적인 회복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전용 검사장비와 전용 수술실, 전용 중환자실을 갖추고 환자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중증외상센터만의 특징이다. /연남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9분 해질 18시 13분 달돋이 13시 34분 달질 23시 53분

안갯길 '안전 운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Gwangju, Jeonnam, and Jeonbuk. Columns include location, weather type, and temperature.

Table with tide information for the East Sea (East Sea) and South Sea (South Sea). Columns include location, tide type, and time.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10 days. Columns include date, weather type, and temperature range.



단군대제 봉행 단기 4344년 개천절인 3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여의산 자유공원 단성전에서 (사)국조송모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군대제가 봉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의료기관 71곳 '경영난'

건강보험 급여비 216억 압류

하루 평균 14곳의 병의원이나 약국이 폐업하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건강보험급여비마저 압류당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순속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만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하루 14개꼴로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도 6월까지 3000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다.

대체급을 갖지 못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료 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

도 8월 말 기준 1062개소에 이르렀다. 총 3780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0개 기관(압류액 738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6개 기관·부산 114개 기관·경남 109개 기관 순이었다.

전남은 71개 기관이 216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했으며, 각 기관별로는 병원 8곳·의원 43곳·약국 20곳이었다.

순속미 의원은 "수십억원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들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독거 노인 대상 한방상담서비스

광주 소방본부 21일까지 인 건강체크에 나설 예정이다.

4일부터 7일까지는 서구, 10일부터 14일까지는 동구, 17일부터 21일까지는 광산구를 차례로 방문하며, 지난달 이미 실시한 남구와 북구는 제외됐다.

또 이번 방문에서 소방본부 측은 비상 응급버튼이나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알려주는 무선제어장치 시스템 단말기를 점검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insurance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installation: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신청 접수'.

Advertisement for MY-MO hair salon: 'MY-MO 심는가발 마이모 호자가발 세일 39만원'.